

초산가격, 멈출 줄 모르는 질주...

한달 사이에 205달러 상승 ... 삼성BP 재가동 불구 공급부족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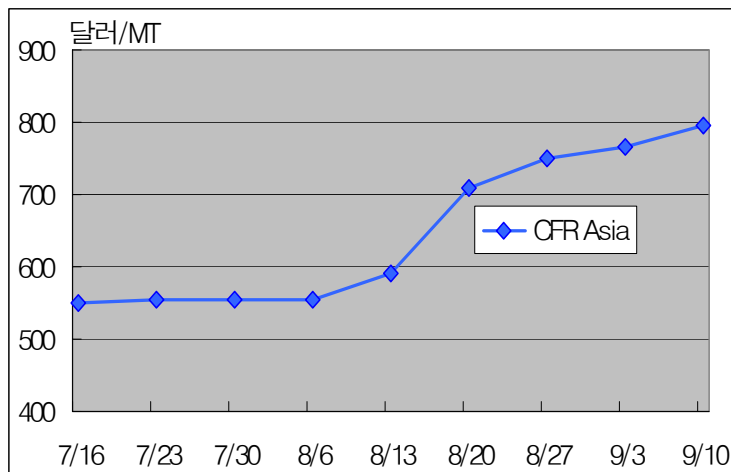
삼성BP화학이 초산(Acetic Acid) 25만톤 플랜트를 재가동해 100%의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여전히 타이트해 가격이 또다시 상승하고 있다.

삼성BP화학의 재가동으로 한숨 돌리는 듯 했으나 불확실하지만 싱가포르 소재 Celanese의 초산 50만톤 플랜트가 CO 공급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어 시장은 또 한번의 공급부족 사태를 겪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Celanese는 플랜트의 가동상태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고 있지 않으나 다양한 근거들이 가동중단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내수가격은 가동중단 소식에도 변동 없이 톤당 7800-8400元の 공장도가로 고정됐고 북부지역의 최저가격이 남쪽지역보다 높았다.

Acetic Acid 가격추이(2004)



Deepsea의 공급물량은 CFR China 및 CFR SE Asia 가격으로 톤당 800달러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구매자는 즉시인도분에 대해서는 CFR 가격으로 톤당 800달러에 구매가 가능하나 이후의 도착물에 대해서는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9월3일부터 15일까지 가동중단에 들어갔던 말레이시아 BP-Petronas는 예정보다 빠른 13일에 재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진 기자>

<화학저널 2004/09/20>